
 <b>지식경제부</b> <small>Ministry of Knowledge Economy</small>	<b>공동 보도자료</b>	<b>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</b> <a href="http://www.mke.go.kr">http://www.mke.go.kr</a> <a href="http://www.mest.go.kr">http://www.mest.go.kr</a>
 <b>교육과학기술부</b> <small>Ministry of Education, Science and Technology</small>		
<p align="center"><b>2011년 8월 3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</p>		
<p>자료문의: 산업인력팀 안창용 팀장(02-2110-5168), 류대규·이선혜 사무관(5167)  (R&amp;D제도 관련) 산업기술개발과 문동민 과장(02-2110-5181), 한철희 사무관(5185)  (교육과학기술부) 산학협력과 정희권 과장(02-2100-6748), 윤경숙 서기관(6732)</p>		

## '12년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, 일하면서 배우는 '성공의 희망사다리' 완성

- 8.30(화), 지경·교과부 장관 '산업인력대책' 공동 발표 -
- ▶ R&D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'10년 30% → '12년 40%로 제고
- ▶ 현장교육 강화를 위한 '산학협력중점교수' 2,000명 채용
- ▶ '국가기술훈련(National Engineer)' 전주기적 지원제도 도입
- ▶ 산업단지내 대학과정 운영(QWL 캠퍼스)으로 일하면서 배울수 있게

-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와 교육과학기술부(장관 이주호)는 8.30(화), 관계부처 합동으로 『산업인력 육성·관리시스템 혁신방안』을 발표함
  - 동 대책은 금년 8.15 경축사에서 제시된 “공생 발전”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
  -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앞장서서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 육성·활용 시스템을 현장수요에 맞게 전환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일자리 창출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
  - 양질의 일자리는 산업의 성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여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
  -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임

## 【추진배경 및 문제점】

- 우리경제는 지난 '80년대까지는 인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된 산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
  - '90년대 이후로는 현장 인력 부족, 중소기업 구인난과 함께 점차 고학력화되는 청년층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, 고령 숙련기술인력의 퇴직 본격화 등이 나타나고 있고
  - 특히, 우수한 인재들이 산업의 핵심 연구·개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계로 유인하는 사회적 메커니즘도 과거보다 약화되어 미래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
-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식을 같이하고,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산업인력 육성·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게 되었음

\* (추진경과) 양 부처 장관 회동(6.15) → 양 부처 장관 교차 현장방문(7.19) → 대책 수립·관계부처 협의(7~8월) → 공동 정책발표(8.30)

## 【대책 주요내용】

### 가. 산업인력의 효율적 활용기반 강화

- ① 양성된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산업수요를 늘리고 '우수 연구개발 인력'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R&D투자를 장비 등 물적자본 중심에서 "사람중심의 R&D 투자"로 전환하고,
  - 이를 위해 R&D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'10년 현재 30% 수준에서 '1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40%로 제고해 나갈 계획

\* R&D 인적자본 투자비중 : ('10) 29.7% → ('12) 40.3%, OECD 인건비 비중('07년) : 48%

-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연구·개발 및 지원인력 신규채용, 대학의 전담연구직과 출연(연) 연구인력 채용확대 등 '12년에 3만개\*의 연구·개발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

\* (기업) 21,350, (연구소) 4,150, (대학) 1,500, (전문연 및 전담기관 등) 1,790, (기타) 1,390

- ② 첨단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군복무시에 커리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인재와 벤처기업가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(한국형 탈피오트\* 프로그램 운영)

\* 이스라엘의 최우수 특수기술장교로 혁신적인 군사장비 개발 및 기술적 문제 해결 담당, 군 복무 후 주로 벤처업계로 진출하여 나스닥상장 창업기업 다수

- SW 마에스트로 연수생의 사이버사령부 근무,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등의 정보보호특기병 근무, 사이버 국방학과 졸업생의 장교(7년) 복무후 벤처창업이나 전문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③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기술인력이 20대 청년인력과 함께 개도국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청년인력에 대한 도제식 교육을 실시하는 「60+20 프로젝트」도 기획·추진될 예정이며

- 국가간 산업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내기업과 연계, 베트남·인도네시아 등 신흥개도국 청소년들에게 국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## 나. 산업인력 양성체계 선진화

- ① 학교·대학교육이 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(대학·전문대학), 산업체 우수강사(특성화고·마이스터고) 채용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임

- 산업체 경력자, CEO 출신 퇴직인력 등을 대학에서 '산학협력중점교수'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취업·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('11.6월 고등교육법 개정)되었으며,
  - 특히, 내년에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협조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2천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
    - \* '10년 51명 → '11년 220명 → '12년 2,000명(교과부 1천명, 지경부 1천명)
-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평가받고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도 일부 감면(30~50% 수준 이상)받게 됨
  - \* 현재 전경련, 노사발전재단 등과 산업체 인력풀 구성을 협의 중이며,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(안)을 마련 중에 있음
- 한편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에서도 산업체 경력자를 '산업체 우수강사'로 초빙하여 학생들의 취업 동기를 촉발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
  - 올해 330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, 교과부·지경부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해 갈 계획임

②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·훈련 기회를 확대함

- 산업단지내에 QWL 캠퍼스(개방형 대학과정) 운영을 통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
  - \* QWL캠퍼스는 복수의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에 참여
  - \* '12.10월까지 반월·시화산업단지를 QWL밸리 성공모델로 조기 창출
-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근로자들이 중견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, 사내대학, 재교육형 계약학과 등 後진학 기회를 확대함

- \* 내년부터는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학·전문대학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서 교육 받는 경우,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됨

### ③ 학생과 수요기업간 매칭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함

- 대졸 인력이 중소·중견기업으로 가도록 대기업이 주관하는 '우수협력사 채용박람회\*', 대한상회가 주관하는 '중소기업 취업박람회'를 개최하고,

\* 예) LG전자, 협력사의 우수인재 채용을 돕기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('11.하)

- 지역기업과 대학생을 연계하는 '희망이음 프로젝트\*'를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 추진하여 취업 미스매치를 완화함

\* 지역의 일하기 좋은 기업 발굴(325개), 100개 대학 1만명의 대학생 기업탐방·교류 연계

### ④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구조조정 방향과 부합되도록 범부처가 참여하는 '대학재정지원협의체'를 구성·운영함

- 평가순위 하위 15% 대학에 대해서는, 교과부 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도록 부처간 협의를 강화함

## 다. 산업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엔지니어 존중사회 실현

### ① 금번 대책에서는 인재양성과 함께 우수한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적절한 관리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

- 산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우수 엔지니어를 '국가기술인재'(National Engineer)로 선정하여 (기술인재관리센터 설치, 인재 DB구축)
- 경력경로 멘토링과 전문 교육·훈련을 제공하고, 퇴직 후에는 대학 교수나 교사, 기술·특허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

- ② 산업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「명예의 전당」을 설치하여 기술전문가 롤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스토리를 홍보\*하는 한편,

\* 경험, 노하우 등 개인별 성공스토리를 일대기 형식으로 제작·책자 발간

- 매년 최우수 국가기술인재를 선정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임

- ③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취업연계형 ‘산업기술장학금’을 연간 1,000명 규모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, 기술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노력을 뒷받침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

## 【기대 효과】

-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부처합동 기자 브리핑에서 “이번 대책을 통해 '12년에 연구개발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어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히고

- “기존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아 보육지원, 중학교까지 의무교육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, 그리고 이번에 「일하면서 배우는 개념」의 산업단지내 QWL\*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게 됨으로써

\* (QWL: Quality of Working Life(근로생활의 질))

-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본인의 노력을 통해 박사급 고급인력이 될 수 있는 「성공의 희망사다리」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”고 강조함

-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“교과부와 지경부가 협조하여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을 2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의 산업체 우수강사를 지속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현장실무 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,
- 4050세대 퇴직인력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, 그 분들의 사회기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”고 밝힘

※ 별첨: 「산업인력 육성·관리시스템 혁신방안」 정책자료